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장 증가와 동일한 1,315.7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전장 증가와 동일한 1,315.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80원 상승한 1,317.50원에 개장했다. 간밤 위험회피 기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중 1,320원까지 레벨을 높였다. 오후 장 초반 환율은 역외 매수 강세에도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1,320원대에서 거래됐으나, 장 후반 달러인덱스 하락 및 외환당국 추정 물량 유입에 보험권으로 레벨을 낮추며 1,317.50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7.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9.59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17.50	1321.80	1314.80	1315.70	1318.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17.49	922.08	915.08	915.2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41.44	1448.87	1439.75	1443.6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34	-6.2	-15	-29.6
결제환율(수입)	-1	-4.84	-12.2	-26.1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미 CPI 경계감에...1,310원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15.70) 대비 0.15원 하락한 1,313.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위험선호 심리 둔화 영향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7월 CPI 전망치는 3.3%로 전달(3.0%)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CPI 경계감에 뉴욕 증시는 S&P500이 0.7%, 나스닥지수가 1.17% 하락하며 위험선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아시아 주식 시장이 부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전환이 예상되는 점은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월 네고,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0.20 ~ 1319.8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640.5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20원 ↓
	■ 美 다우지수 : 35123.36, -191.13p(-0.5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0.9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12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